

무서운 게 딱 좋아!

글 38대 석우 교지편집위원회 일동  
디자인 연재민

## 과학26 안현주

초등학생 시절 나에게 공포 이야기는 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방과 후 교실 구석에서 누군가 “야, 너 그 얘기 알아?”라고 운을 떼는 순간 그날 밤의 잠은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내 어린 시절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가발 가게의 비밀’이다.

이야기는 한 여자가 길을 가다 새로 생긴 가발 가게를 발견하며 시작된다. 가게의 쇼윈도 안 마네킹이 쓰고 있는 가발은 눈이 부실 정도로 결이 고왔고, 여자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인다. 주인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에게 그 가발을 헐값에 넘긴다. 가발을 쓴 여자는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지만,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시작된다. 잠결에 누군가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꿈에 시달리는가 하면, 깨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한다.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가발을 돌려주러 가게로 달려갔을 때 여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다.

쇼윈도 안에는 여자와 똑같이 생긴 마네킹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여자가 샀던 가발은 그녀처럼 가게에 가발을 사러 왔던 앞선 손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제 가발을 쓴 여자 역시 서서히 굳어 가며, 다음 가발을 위한 마네킹이 될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손님이 가게 앞을 지나다 마네킹의 머릿결에 반해 가게 문을 열며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이 이야기는, 9살의 나에게겐 좀비 습격 예고만큼이나 무시무시했다.



오픈 사실은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내가 제 발로 미용실에 걸어가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짧은 머리를 길게 늘이기 위해 타인의 머리카락을 내 머리에 한 땀 한 땀 엮는 그 순간 문득 초등학교 때의 그 소름 끼치던 괴담이 떠올랐다. 미용사 선생님이 “이거 진짜 사람 머리카락이라서 아주 자연스러워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선생님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요....’라며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난다. 여전히 가끔 인모 붙임머리나 가발을 보면 이 공포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혹시 이 머리카락의 주인도 어느 가발 가게의 쇼윈도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 말이다.

결국 공포란 건 그런 게 아닐까? 시대에 따라 인모 가발이 괴담이 되기도 하고 붙임머리라는 유행이 되기도 하는 것. 이제는 그 귀신이 나타나도 무섭기보다 부러울 것 같다. 슬며시다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니까.

“저기요, 실례지만 머릿결 관리는 어디서 하세요? 정보 좀 주실 수 있나요?”

## 교육24 김서현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꼭 어둠 속이나 낯선 공간에서만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익숙한 일상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살면서 가장 오싹했던 순간은 바로 2025년 어느 평범한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뒤였다.

그날은 오전 11시 10분 '생활과 정치'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전날 나는 평소처럼 알람을 수업 1시간 전으로 맞추고 잠에 들었다. 과제로 인해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지만, 1교시 수업 휴강으로 잘 시간은 충분했기에 걱정이나 불안은 없었다. 그것은 알람이 준 심리적 안정감이었을까.

눈을 뜨고 나서 나는 말로만 들던 '진짜 지각했을 때 볼 수 있는 풍경'을 경험했다. 짹짹거리는 새 소리, 유난히 따사로운 햇살, 고요한 주변. 그렇지만 전혀 지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람이 울리기 전 스스로 일어났다는 부딪힘에 사로잡혀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화면에 찍힌 시간은 11시 2분.

그 순간, 온몸의 장기가 그대로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다. '지금이 몇 시지?'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머릿속에서는 8분을 어떻게 쓸지 계산했다. 우선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을 입고, 이동하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폭발하듯 떠올랐다.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다. 머릿속에서는 세수와 양치를 떠올렸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냥 옷장을 열고 아무거나 입을 후 모자와 마스크를 뒤집어썼다. 손에는 노트북만 챙겨 방을 나왔다.

하필 내 방은 왜 4층인가. 남은 시간은 3분. 계단을 내려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다리가 자꾸만 풀렸다. 그래도 뛰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계단을 2~3칸씩 뛰었다. 기숙사 건물을 나와 달리면서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각하면 어떡하지.’, ‘출석은 이미 불렀을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상이 자꾸만 공포로 다가왔다. 당시 매일 10km씩 달린 일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강의실 문을 벌컥 열고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11시 9분에 도착했다. 교수님께서 11시 10분이 되자마자 평소와 같이 출석을 확인하셨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평온해 보였다.

그날 나는 간신히 지각을 면했다. 단 1분 차이였지만, 그 1분은 어떤 상황보다도 더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 이후로 알람을 2개씩 맞추는 습관이 생겼다. 누군가는 귀신 이야기를 공포라고 말하겠지만, 나에게 가장 무서운 사건은 여전히 하나다. 바로, 알람을 듣지 못한 아침.

그런데 세수도, 양치도 하지 못한 채 아무 옷이나 집어 입고 뛰쳐나온 내가 왜 5분이나 걸렸을까. 수업이 끝난 뒤 돌아와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것이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부자리 정리를 하고 나온 사람이었다.



## 교육26 이재희

10여 년 전 늦여름,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러 할머니 댁에 갔었다. 시골에 있었던 할머니 집은 언제나 그랬듯 정겨웠다. 한편에선 소가 우릴 반겨주었고, 집 안에서 우리가 올 때를 맞춰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치킨 냄새가 솔솔 났다. 뜨거운 태양 빛이 내리쬐는 한여름임에도 선선하게 부는 바람과 손에 들린 시원한 물 한 잔은 더위를 잊고 우리를 뛰어놀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다 매일 똑같이 뛰어놀기에 지친 나와 내 동생은 할머니 마을 탐방을 나서기로 했다. 둘이서만 나가 놀기엔 위험하다며 아빠가 함께 따라나섰고, 아빠는 우리에게 아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마을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평화로운 시골길의 풍경에 취해 있을 때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난기가 발동한 동생은 강아지와 대화를 해보겠다며 개를 따라 ‘멍멍’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생이 소리를 낼 때마다 저 멀리서 화답하듯 개 짖는 소리가 돌아왔다. 동생은 개가 대답을 해주는 것 같다며 신이 나서 더 크게 짖어댔다. 그러나 이내 즐거움은 순식간에 서늘한 공포로 변했다. 개의 울음소리가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줄도 없이 풀려 있었던 진돗개는 동생의 소리를 따라 우리 앞까지 찾아왔다.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하다. 개는 털을 꼳꼳이 세운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이 맹렬하게 짖어댔다.

너무 놀란 나머지 동생과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다. 겁에 질려 발을 떼려던 찰나, 개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움직이지 마. 지금 뛰면 끝까지 쫓아온다. 가만히 있어." 아버의 목소리에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멈춰 섰다. 다리는 눈에 띄게 덜덜 떨렸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버는 우리를 등 뒤에 숨기신 채 주변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개를 자극하지 않도록 침착한 태도로 개가 돌아가도록 유도하셨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몇 분 같은 몇 초 흐른 뒤, 다행히 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인을 찾아 돌아갔다. 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동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나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는 놀란 우리를 잘 다독이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하셨다. 할머니 댁에 도착해 먹은 식어버린 치킨은 평소보다 조금 덜 고소했지만,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저녁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와 동생은 아무리 반가워도 짖는 개에게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뼈저리게 얻게 되었다.



## 국어24 유상은



여름 장마철이었다. 하늘은 낮인데도 저녁처럼 어두웠고, 비는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거기에 천둥까지 쿵광거리며 치고 있었다. 그런 날에 하필 나는 교과서를 교실에 두고 온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잠깐 고민했다. '지금 혼자 다녀오기 vs 내일 선생님께 혼내기'. 그리고 결국, 더 무서운 건 선생님이라고 결론 내렸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또각또각. 천둥이 한번 칠 때마다 괜히 더 놀라서 어깨가 움찔했다. 번개가 번쩍하면 복도가 잠깐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는데,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진짜 시작이었다. 불은 꺼져 있고, 창문은 검게 젖어 있고, 책상들은 줄 맞춰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또 한 번 천둥이 크게 쳤고 이에 더해진 바람 때문에 문이 '끼익' 하고 움직이자, 심장은 거의 교과서보다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책을 찾는 게 아니라 거의 집어 들고 도망쳤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도 절대 안 돌아봤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뛰기 시작했는데, 아까는 안 뛰겠다고 생각했던 건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천둥소리랑 내 발소리가 섞여서 더 정신이 없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실히 알게 됐다.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비 오고 천둥 치는 날의 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에게는 거의 귀신의 집이었다.

## 국어26 김규빈

여름방학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탈 생각에 무척 신이 났겠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우리는 ‘좀비 프리즌’이라는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를 구매하고 기다리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긴장감이 느껴졌다. 주변 놀이기구와는 다른 분위기에 곧 다가올 미래의 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체험이 시작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둡고 붉은 조명 아래로 보이는 낡은 철창과 벽,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는 나의 불안감을 키웠다. 중학교 2학년인 나에게 이 곳은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곳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초반에는 아직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에 좀비가 튀어나오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 좀비는 얼굴 절반이 짓물러져 있었고, 찢어진 상처 사이로 검붉은 피가 엉겨 붙어 있는 분장이 소름 끼칠 만큼 사실적으로 보였다. 그는 마치 관절이 모두 부러진 것처럼 몸을 기괴하게 비틀며 다가오더니, 갑자기 팔을 뻗어 우리를 위협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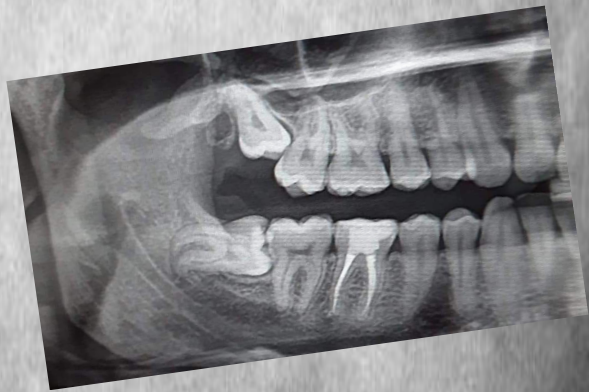


우리 팀은 총 6명이었고, 친구와 나는 앞에 설수록 좀비를 먼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맨 뒤에 서기로 했었다. 우리는 앞서함과 연결된 끈을 간신히 붙잡고 뒤에서 끌려가듯 따라갔다. 손에 계속 땀이 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다. 어두운 통로에서는 눈앞이 컴컴했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좀비 때문에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거기다가 뒤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좀비가 우리를 쫓아올 거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전혀 그걸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진짜로 좀비가 나타난 상황에 처한 듯이 숨이 가빠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친구와 나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서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서 나가기 직전까지도 쉬지 않고 비명을 질렀다. 드디어 밝은 빛이 보였고, 그 빛을 따라 밖으로 나왔을 때에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렸다. 친구와 나는 주저앉아 서로를 보며 우는 눈으로 웃었다. 그 웃음에 섞인 것은 안도감이었다. 이 날 이후로 나는 두 번 다시 공포 체험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린 시절의 재밌는(무서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 국어26 안종혁

제가 가장 공포스러웠던 기억은 다름 아닌 치과에서의 치료 경험입니다. 치과는 나이가 들어도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저에게는 여전히 가장 두려운 공간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코끝을 찌르는 그 특유의 싸한 약품 냄새와 쇠 냄새를 맡으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진료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계 소리에 겁이 난 채,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제 이름이 불리고 그 차가운 가죽 의자에 몸을 눕히면, 도살장에 끌려간 양 마냥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된 기분이 듭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기계의 진동이 턱뼈 전체를 타고 온몸에 울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물리적인 통증도 고통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몸의 일부가 갈려 나가고 있다는 미지의 공포가 저를 더 압도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자가 다시 세워질 때쯤이면, 얼마나 손을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는 손톱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등 뒤는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치과 의자에 누워 벌벌 떨며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 최대의 공포였습니다. 그 뒤로는 열심히 이를 닦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 치과에 갈 일이 없을 줄 알았건만, 사랑니 때문에 다시금이 공포를 다시 느끼러 가야 하네요. 하하...



## 국어26 연재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잊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순간을 경험한다. 나에게 그런 순간은 19살 고등학생 시절, 좋아하는 축구팀의 내한 경기를 보러 갔다가 겪었던 일이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당시 느꼈던 공포는 아마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때는 내가 19살 고등학생 시절, 1학기 중간고사 시험기간이 한참이던 시절이다. 그때의 난 서울의 교통이나 지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린 학생에 불과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좋아하던 축구팀이 한국에 내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임 끝에 결국 경기 티켓을 예매했다. 시험기간이었지만 좋아하는 팀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든 걱정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렇게 찾아온 경기 당일, 불행하게도 부모님께 변명할 때 시간이 끌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난 그런 어려움도 예상하여 아침부터 출발하였기에 일정은 굉장히 순조로웠다. 맛있는 점심도 먹고 잔뜩 기대한 채 간식과 음료를 사서 들어간 뒤 눈앞에서 펼쳐진 경기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당장 눈앞에서 뛰고 응원하는 그 순간만큼은 시험에 대한 걱정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경기가 끝난 후에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경기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순간,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정류장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마치 개미 떼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경기 중간에 먼저 나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먼저 나간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를 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 순간부터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며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의 지리와 교통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두려워졌다. 만약 휴대폰이 꺼진다면 부모님께 연락조차 하지 못한 채 낯선 도시에서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부모님께 혼날 수 있다는 걱정, 그리고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놀러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이며 그곳은 나에게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공간으로 느껴졌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밀려다니는 동안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내어 사람들 사이를 헤쳐 나갔다. 결국 난 버스가 문 닫기 직전에 손을 뻗어 카드를 찍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긴 악몽에서 벗어난 듯 한 기분이 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미술25 도은교

보통 ‘공포감을 느낀 순간’이라고 하면 무서운 이야기나 위험한 상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저에게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그것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학과 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7시 30분 경기를 뛰기 위해 7시에 일어나 비몽사몽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는 극적인 역전승으로 끝났고, 승리감에 취해 동기, 선배들과 모여 아침부터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배부르게 라면까지 먹고 나니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가’ 제대로 온 것입니다. 11시 10분 수업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기에 기숙사에 돌아가 딱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수업에 가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같았습니다.

얼마 뒤 잠에서 깬데, 몸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개운했습니다. 잠깐 쪽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의 그 찌뿌둥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시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11시 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6분. 그 6분 안에 가방을 챙겨 4층에 있는 기숙사 방을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가야 했고, 거의 등산을 하여 미술관 강의실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지각을 직감한 순간의 서늘함, 그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험난한 등산 코스가 머릿속을 스치며 머리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잠에서 깬 직후가 순식간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으로 바뀌었던 그 아침의 11시 4분은 대단하진 않지만 최근 제가 겪은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웠던 공포의 순간입니다.

## 미술26 김나연

내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바로 채팅방을 착각했을 때였다. 버튼 하나를 누른 것뿐인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얼굴에는 화끈화끈 열이 오르며 손에는 땀이 나는 경험을 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 일이 발생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나는 평소처럼 게임과 친구와의 연락을 동시에 하며 놀고 있었다. 게임을 하다가 친구의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창이 뜨면 곧바로 눌러서 답장을 했다. 이것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 이제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누를 지경이었다. 아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 알림창도 별생각 없이 눌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친구에게 보내는 말투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까지 후다닥 눌렀다. 그런데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하고 확인해 보니 내가 메시지를 입력한 채팅방에는 친구와의 대화 기록이 아닌 학급 공지 사항이 띄워져 있었다. “그” 알림창은 바로 학급 단독방의 알림창이었다. 급하게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졌다.

간신히 삭제를 하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봤을 것이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참 기분이 안 좋았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다. 참 부끄러운 상황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공포스럽다.

나는 그날 이후로 습관이 생겼다. 채팅을 보내기 전에 채팅방 이름을 먼저 확인한다. 또 실수할까 봐 생긴 습관이다. 또한 중요한 단체 채팅방에는 아예 잠금을 설정해 두었다. 잠금을 설정해 두면 채팅이 바로 입력되지 않는다. 나와 같은 경험으로 크게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던 사람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기능이다. 이후로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아주 무서웠던 순간이지만 그 일 덕분에 더 큰 실수를 방지했다. 또 채팅 잠금이라는 새로운 기능도 알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다.

## 미술26 한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은 26학년도 수능 탐구 시간이었다. 오전 시험 과목들이 생각보다 술술 풀린 덕분에 점심도 편안하게 먹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막 마지막 탐구 영역을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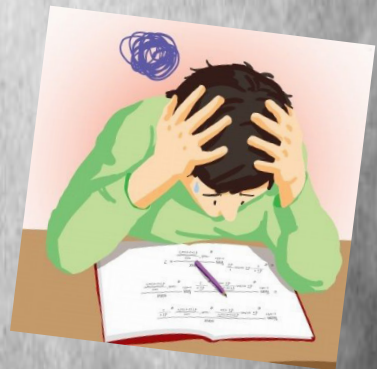
고3 수험생활을 통틀어 가장 공들여 공부한 과목을 꼽자면 사회문화였다.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했기에 사탐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내용 자체도 흥미로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능 당일에도 사회문화를 풀 때면 그저 평소처럼 모의고사를 푸는 기분일 줄만 알았다.

그러나 예비종이 치고 문제지를 받은 뒤 시계를 보며 기다릴 때, 정말 너무 무섭고 떨리기 시작했다. 숨을 천천히 크게 쉬어 봐도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그 쿵쿵거리는 긴장감을 안은 채 시험이 시작되었다. 평소라면 빠르게 풀어나갔을 문제들이 하나도 읽히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머릿속에 있던 개념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정신적인 혼란으로 머릿속은 어지러웠지만, 손은 빠르게 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땐 이미 시험 시간 30분 중 20분이 지나 있었다. 남은 문제를 세어 보니 까다로운 문제 4개가 남아 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떤 문제가 더 쉬울까, 그나마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쉬워 보이는 것부터 빠르게 해결해 나갔다.

남은 4문제 중 2문제를 풀었을 때 시계를 보니 고작 3분밖에 안 남아 있었다. 그때부터 다시 심장이 크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일단 얼른 OMR 카드에 답을 옮겨 적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킹을 시작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잘못 적을까 봐 너무나 무서웠다. 손에 땀이 많이 나서 나중에는 OMR 카드가 살짝 축축해진 느낌까지 들었다. 결국 남은 2문제는 찍게 되었고, 그 답을 마킹하자마자 시험 종료 종이 울렸다.

그 순간 허망함과 다 끝났다는 부딪힘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내 인생 가장 공포스러운 30분이었다.



## 수학24 이채운

3일 동안 시험이 이어지는 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마지막 날이 되자 몸이 확실히 지쳐 있었다. 거의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르다 보니, 마지막 시험만큼은 이 상태로 보면 오히려 더 망칠 것 같았다. 그래서 시험 전에 잠깐 잠을 자기로 했다. 길게 잘 생각은 아니었고, 네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알람도 맞춰 두고 나름대로 시간 계산도 해 두었다.

알람이 울렸을 때, 계획대로 일어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 몸은 무겁고 정신은 덜 깬 상태였지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런데 시험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그 안도감이 단번에 무너졌다. 나는 잘못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 시험은 이미 한 시간 전에 시작된 상태였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하면 그대로 성적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에,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금 가봤자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그 짧은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늘어지며,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정신을 붙잡고 교수님께 쪽지를 보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방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봤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애매한 상태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두 시간 뒤에 사무실로 와서 따로 시험을 보라는 내용이었다. 대신 점수는 70%만 인정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완전히 같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예 시험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선택지는 분명했다.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서는 처음의 극단적인 당황스러움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다.

돌이켜보면, 그날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은 늦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짧은 시간이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의 막막함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와는 별개로,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다.

## 수학25 공동육

이 이야기는 10년 전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다.

당시에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은 몇만 명 안되는 군 지역이었고 시내에서 차를 타고 30분은 가야 하는 조금 외진 곳이었다. 바로 앞에는 저수지가 있었다. 주변에는 주인 모를 무덤들이 널려있었으며 근처에는 주인이 죽거나 없어서 버려진 집이 흔해 주변 이웃 주민도 거의 없었다. 특히 저수지 건너편에는 화장터가 있어 왠지 모를 스산함이 깔린 곳이었다. 이런 환경들은 초등학교 시절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할머니 댁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서울 게 많던 겁쟁이 초등학생에게는 말이다.

때마침, 학교에서 슬랜더맨이라는 미국산 달걀귀신이 유행했다. 키는 3m에 얼굴은 백지처럼 새하얀 괴물이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데 이와 대비되는 이목구비가 없는 얼굴, 등 뒤의 촉수는 보는 이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준다. 아이를 납치해 가는 것이 이 괴물의 특징이다. 유튜브에는 관련 합성된 영상, 사진 찌라시들이 돌았고 그에 속는 어린 학생들도 가끔 보이기도 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달리 달빛이 창문에 강하게 비쳤다. 밖에서는 부엉이인지 올빼민지 모를 스산한 새소리가 나며 저수지 위로는 안개가 깔린, 그저 그런...날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잠에 들기 위해 혼자 뒤적이던 그때. 거실의 창문과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는 창문에서 나오고 있는 무언가였다. 그 형태가 길쭉하고 둥근 것이 마치 유튜브에서 본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 잘못 본 건가 싶어 급히 고개를 꺾은 후 이불을 덮었다. 귀신이라니, 그것도 미국 귀신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헛것이다. 분명히 헛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심호흡했다. 그 후 확인을 위해 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시 본 창문에서는 괴생명체가 머리부터 스르르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미끄러져 나오고 있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는 그대로 눈을 감고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피신하였다.

그렇게 나의 짧은 귀신 소동은 마무리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다. 어릴 적의 귀여운 소동이었다. 그런 합성 영상은 다 거짓이고 귀신이 어디 있겠나 생각한다. 다만 그때의 그 장면만큼은 생생하다. 스르르...창문에서 튀어나오던 그 장면 말이다.



## 영어24 조성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불을 끄고 누웠다. 학교를 다녀온 직후라 피곤했던 탓인지 휴대폰을 볼 겨를도 없이 금방 잠에 들었다. 두 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잠에서 깬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만 떠지고 내 몸은 굳은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덜 깬 상태인가 생각했지만, 손가락조차 움직여지지 않자 가위에 눌린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방 안이 유독 조용히 느껴졌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이지 않던 ‘위잉’ 하는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빵!’ 하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 ‘슁’ 하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증폭된 듯 크게 울렸다. 마치 확성기로 듣는 것처럼 귀가 예민해졌다.

처음에는 다시 잠들어 보려고 눈을 감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나는 내 몸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과 함께 천장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 같은 비현실적인 장면에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잠에 드는 것은 포기하고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이후 주변 소음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내 귀 바로 옆에서 소름 돋는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방 안에 누군가 들어와 나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 옆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정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을 알기에 앞만을 볼 수밖에 없었다.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면 미지의 존재와 눈이 마주칠 것만 같았다. 조여오는 공포감에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공포에 빠뜨렸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 순간 전혀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살짝씩 움직여지며 팔과 다리에도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굳어있던 몸이 한꺼번에 풀리듯 긴장이 확 풀렸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막혔던 숨을 내쉬며 방 안을 천천히 살펴봤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내 방의 모든 게 지나치게 평소와 똑같아서 방금 전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주변을 확인한 뒤에야 괜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고, 안도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날 들었던 기묘한 소리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스쳐 지나간 낯선 장면,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정체 모를 속삭임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결국 그날은 몇 시간 동안 불을 켜고 앉아 있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다. 물론 그 이후로 그렇게 심하게 가위를 눌린 적은 없었지만, 지금도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잠들기 직전만 되면 그 순간이 문득 떠올라 두려워지곤 한다.



## 영어25 구도연

사람마다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등장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나에게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스러운 등장 장면이 있다.

중학생 때, 엄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 엄하셨지만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이셨다.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항상 5분 정도 요가 동작을 하게 하셨다.

익숙하게 아는 스트레칭 동작부터 처음 보는 동작까지 여러 동작을 배웠다. 그중 '사자 자세'라는 독특한 동작이 있었다. 두 눈을 위로 치켜뜨고, 허를 최대한 길게 내미는 자세다. 안면 근육을 푸는 데 좋은 자세라고 하셨다. 처음 배우는 날 학급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게 맞냐는 표정을 지었다. 수업 시간에는 아무 말도 못 했지만, 쉬는 시간만 되면 사자 자세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는 반까지 사자 자세를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자세는 전교에서 유명해졌다.

내 친구들도 그 자세를 참 좋아했다. 중학생은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고 하지 않는가. 친구들의 뒤집힌 눈과 헛바닥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수업 시작하기 전이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사자 자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따가 또 사자 자세하겠지? 근데 왜 사자 자세야? 사자보다는 동네 바보 같아.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안에서 걸어 나오셨다.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세면대 앞에 몰려 있다가, 선생님이 다가오자 동시에 양옆으로 갈라졌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우리 사이를 지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을 씻으실 뿐이었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선생님이 화장실을 나가신 뒤에도 우리는 한참을 얼어 있었다. 선생님이 완전히 멀어지신 걸 확인한 후에야 모두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

차라리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오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사자 자세를 떠올리면 웃음보다 먼저 그 등장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앞으로 귀신을 본다고 해도 그때보다는 덜 무서울 것만 같다.

## 영어25 이경민

처음에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라는 공통 코너 주제를 들었을 때 선뜻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마치 이 글쓰기를 돕기라도 하듯 공포스러운 순간이 바로 오늘 내게 찾아왔다.

본가가 대구라 학교와 거리가 멀어 평소에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지만 이번 학기 시작 후 처음으로 본가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1교시 수업을 위해 다시 대구에서 춘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춘천으로 가는 버스 막차는 오후 5시 30분이었고 이를 놓치면 다음 날 아침 수업에는 도저히 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첫차를 타더라도 도착 시간이 오전 11시라 수업을 포기해야 했다. 고속버스 외에 다른 이동 수단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막차를 타야만 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집에서 동대구역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고 적어도 오후 4시 40분에는 출발해야 안전하다고 계산했다. 그전까지는 어린이와 문학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과제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40분쯤이었다.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한 나는 가족들과 함께 탕수육을 먹고, 씻고,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방을 챙기기 직전에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미 오후 4시 40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급하게 짐을 싸고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차에 탔을 때는 이미 5시였다.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공포의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밖에 없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뛰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25분 안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퇴근 시간과 겹친 탓인지 도로는 쉽게 뚫리지 않았고 신호마다 차는 멈춰 섰다. 그 짧은 정지의 순간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너무 답답함이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화나기도 했다. 차 안에서 나는 온갖 생각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진 적도 지각한 적도 없었던 나에게 공식적인 이유의 결석이 아닌 결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기준이 무너지는 일처럼 느껴졌다. 무조건 나에게 지켜야 할 규칙이었고 학점을 열심히 챙기는 나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학점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조마조마했다. 수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성격상 이 버스를 놓치면 결국 아버지께 왕복 8시간이나 걸리는 춘천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렇게는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마조마함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동대구역까지는 할아버지께서 운전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능숙하게 길을 뚫어주셨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조마조마했지만 잘하면 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덕분에 버스 출발 4분 전에 간신히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전력 질주를 했다. 승강장이 4층에 있어 에스컬레이터를 두 번이나 뛰어 올라가야 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결국 거의 마지막 순간에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는데 너무 무리해서인지 목에서 피 맛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늘의 경험은 나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시간이 넉넉해 보더라도 방심하지 말 것,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수시로 확인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긴박한 순간을 함께 버텨주고 도와주신 할아버지께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 영어26 윤유안

‘노는 게 제일 좋아’로 시작하는 유명한 노랫말처럼, 세상에서 노는 게 제일 좋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노는 것 외의 세상 돌아가는 일은 잘 모르고, 딱히 알고 싶지도 않았던 시절. 그땐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날쌔게 놀이터로 달려갔다. 언제 가든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므로, 여럿이서 함께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햇살이 불똥처럼 우르르 쏟아지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종일 집에서 지냈다.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불더위는 피해야 한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앞으로 뭘 해서 하루를 보낼지 막막하게 느껴지던 차에 마침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시야에 들어왔다. 두께가 정말 얇은 책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읽어 내려가기도 전에 졸음이 슬금슬금 몰려왔다. 예나 지금이나 졸음에 약한 나였으므로, 눈꺼풀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나 홀로 하는 잠과의 사투가 길게 이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하늘과 땅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사방이 어두워졌다. 온통 검은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어둠을 가로지르며 하나의 형상만이 보였는데, 바로 처음 보는 한 소년이었다. 소년은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같이 놀자고 제안했다. 하마터면 이미 알고 있던 사이인가 착각할 정도로, 초면이면 으레 드는 경계심마저 바람에 흩 날려버리는 밝은 기운이었다. 소년의 뒤편에는 눈에 익은 놀이터가 보였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달려갔던 그 놀이터를 발견하고 나는 반가움에 들떠 어쩔 줄 몰랐다. 얼른 그네에 몸을 맡기고 싶었다.

얼마 안 있어 소년과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달렸다. 신나는 잡기 놀이가 시작됐다. 소년은 아주 빠르게 달렸고, 놀이터의 기구들을 능숙하게 오르내렸다. 잡으러 다니는 소년을 피해 나는 있는 힘껏 도망쳤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들썩였다. 점점 숨이 차올랐다. 그저 잡고 도망 다니는 연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다리에선 점차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멈추는 법 없이 다리는 교대로 움직일 뿐, 굳은살처럼 신체에 붙어는 있지만 죽은 살 같았다. 한 순간에 두 다리가 낯설어졌다.

문득 내 머릿속엔 집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어쩌서 그동안은 집 생각이 전혀 안 들었지? 곰곰이 따져보니 모든 게 의문스러웠다. 숨 차는 소리를 뚫고 내 안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손끝에서부터 온 힘을 쥐어짜다. 집에 가려면 놀이는 끝나야 한다. 놀이는 이제 끝이다. 끝났다. 그렇게 정신을 집중해 중얼거렸다. 그제야 두 다리가 우뚝 멈췄다. 나를 잡으려는 달음박질도 뒤이어 그친 게 느껴졌다.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데, 그림자가 내 등 위로 드리웠다. 점점 길어지는 그림자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길어졌다. 뒤를 돌아보자 새하얗진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소년은 내 손목을 역세게 잡아 비틀고는, 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소년의 손아귀가 내 손목을 끊을 듯이 점점 조여왔다.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조금씩 새어 나왔다. 소년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에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두 눈이 딱 떠졌다. 꿈에서 깬 것이다. 온몸을 압도하던 두려움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잠들기 전과 다름없이 내 손목은 멀쩡했다. 이윽고 누운 자리 곁에 아무렇게나 둔 책이 시야에 들어왔다. '피터 팬'이라고 큼직하게 쓰인 책의 제목에 나는 섬찟 놀랐다. 꿈에서 나를 붙잡은 괴물의 정체일까. 자라지 않고 영원히 놀기만 하는 굴레가 그 순간 끔찍하게 느껴졌다.

## 컴퓨터24 강이안

나는 원래도 오컬트나 귀신 같은 걸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기묘하고 오싷한 괴담보다는 해외여행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무섭다고 느꼈던 에피소드를 풀어보려고 한다.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은 귀신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도 아니다. 외딴곳에 남겨졌는데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21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2025년 12월에 떠난 상하이 여행 중 우리는 디즈니랜드에 가게 되었다. 쏟아지는 인파에 지친 우리는 폐장 시간에 맞게 나가 택시를 부르기로 했다. 택시는 생각보다 금방 잡혔고,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다. 우리는 택시가 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편하게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갑자기 발생했다.

나는 주차장에서 인터넷이 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나오니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다. 우리 일행 중 아무도 인터넷이 잘 되는 사람이 없었고, 겨우 부른 택시마저 연락 두절이었다. 한국이었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여기는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였다. 지하철역은 우리가 있던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도저히 그쪽까지 걸어갈 힘이 나지 않았다. 그 많은 관광객들은 하나 둘씩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시작했고 우리만 여전히 멍통인 휴대폰을 붙잡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폐장 후 시간이 더 지나면 주차장 안으로 차가 아예 들어올 수 없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편하게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누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숙소에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익숙한 언어도, 익숙한 시스템도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만약 이 상태로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이 일을 단순한 에피소드로 풀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모든 일행이 그날 별 탈 없이 무사히 돌아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외국인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던 한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우리에게로 오더니 무어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다. 앱 화면 속 택시 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니 대신 통화를 해 주면서 우리가 무사히 택시를 탈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다. 도와줄 때도 계속해서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던 기사 아저씨였지만 덕분에 아무 문제없이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막막함과 불안은, 살면서 겪은 어떠한 경험과도 비교되지 않는 또렷한 공포였다.